

밴쿠버, 늘어가는 고령 시민 지원을 위한 노인주거전략 챕터

<https://vancouver.ca/news-calendar/seniors-housing-strategy-address-needs-of-older-adults-july-2024.aspx>
<https://www.shapeyourcity.ca/seniors-housing>

캐나다 밴쿠버 시의회가 고령층 시민에게 더 많은 주거 옵션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주거전략(Seniors Housing Strategy)’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밴쿠버의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20년 안에 특히 75세 이상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전략의 중요한 목표는 고령자가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규제와 응호활동,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저렴하고도 고령자 니즈에 맞는 주거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먼저 밴쿠버 전 지역에 걸쳐 고령자의 수요를 반영한 주택 옵션을 마련하고 공급하기 위해 리조닝(rezoning) 정책을 시행한다. 지역 재개발 시 커뮤니티케어와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고령 시민을 고려하는 거주민 이전 정책도 마련된다. 고령자와 기타 거주자가 질 높은 건축 공간에서 돌봄을 받고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지침을 개선한다. 이때 고령 거주자의 특정 수요에 맞추어 장기요양시설, 복지시설, 고령자 지원 또는 독립 주택 개발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민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하는 등 주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자금과 지원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커뮤니티의 수요를 미래 정책 개발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더욱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정부와 지역사회 파트너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령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shutterstock